

### '월등삼매경' '대반나원경' 등 한글대장경 5권 출간



한글대장경 5권이 새로 나왔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율운)에서 번역 출간한 한글대장경은 <월등삼매경> <북계정행소집경> <대반나원경> <비나야> <미사색 부화해오분율2> 등.

인도의 나련제야사가 한역한 <월등삼매경>은 본래 이름이 <입어대비대방등대집설경>으로 흔히 <대방등대집설경>이라고도 부른다. 삼매에 대한 수식어로 월등(月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까닭은 삼매를 닦으면 마치 달빛이 길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등삼매경>에는 <불설월등삼매경> <불설관정경> <불설약사여래본원경> <불설방발경> 등이 함께 번역 수록돼 있다.

<북계정행소집경>은 용수(龍樹)가 편찬한 원봉(日稱) 등이 한역한 것으로 전체 12권으로 구성돼 있다. 복록을 받는 바른 행위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은 것으로, 곳곳에서 용수 특유의 사상적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북계정행소집경>에는 구마라집, 보리유지, 진제가 각각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이 번역돼 있다.

중국의 학승 법현이 한역한 <불설대반나원경>은 모두 6권으로 되어 있으며, 부처님과 일반 및 불성(佛性)에 대한 교리를 설하고 있다. <대반나원경>에는 <대반나원경후분> <불설방등반나원경> <사동자삼매경> <대비경> <불설문수회과경> 등이 실려 있다.

중국에서 한역된 것으로 알려진 <비나야>는 비구와 비구니의 생활규범인 계율이 제정되게 된 인연을 밝혀놓은 율장으로서 <계인연경비나야>라고도 불린다. <비나야>에는 <마하승기비구니계본> <미사색오분계본> <마하승기비구니계본> <사분승계본> <오분비구니계본> <사분비구니계본> <담무덕을부잡잡마> 등이 수록돼 있다. <미사색부화해오분율2>에는 불타집(佛陀什) 등이 공역한 <미사색부화해오분율> 16권~30권까지와 <미사색잡마본>이 한역돼 있다.

### 역대 중정스님 생애와 법어

정휴스님 '달을 가리키면...' 증보판 펴내

선사들의 짙막한 법어 한마디는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단박에 증성을 깨우친다.

출판시대가 출간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는 역대 조계종 중정스님들의 생애와 법어를 담고 있다. 기존 창담 효봉 동산 서용 고암 스님에 성철

월하스님을 추가한 증보판. 난해한 스님들의 법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정휴스님(불교신문사장이)이 엮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중정 스님들은 목소리를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 어린이 눈높이 문화유산 책

### 보고 배우는 문화유산



전국 40여 사찰 문화재등 소개 삽화 곁들여 '볼만'

### 덤방이 세계문화유산 탐방



불국사·둔황석굴 등 만화로 떠나는 세계문화유산 여행

###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Best 10



석굴암·한글 등 문화관광부 선정 한국 빛낸 유산 소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의 빼어난 문화유산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문화유산 책들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이 책들은 읽고 보는 재미를 통해 우리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를 배우고,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균형있는 문화관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생한 자료사진과 현장감있게 구성된 삽화와 그림은 마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보고 배우는 문화유산>(전4권, 여명출판사) 시리즈는 서울의 불국사 조계사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 강화전등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상원사 신흥사 등 40여곳의 가볼만한 사찰을 소개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그에 얽힌 일화 등을 재미있게 구성해 놓았다. 이외에도 유적지 및 박물관, 공원과 유원지, 고건축물, 능과 묘소, 천연기념물 등을 고루 소개하고 있다.

서울권, 인천·경기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보아야 할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어 자연과 지리, 역사를 배우는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불거리를 주제별로 선정하고 자료사진과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형식의 삽화를 곁들여 실어 흥미를 돋운다. 각 지역의 문화 유적 지도를 그려넣고, 유적지마다 교통편까지 안내하고 있어 현장 학습을 위한 안내서로도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덤방이 세계문화유산 탐방>(전3권, 두산동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문화·인물 이야기를 만화로 엮었다. 이중 우리나라의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관음대장경, 일본 호오류사, 중국의 둔황석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인도의 산치 등이 소개돼 있어 불교문화유산의 특징과 함께 4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권, 유럽권, 아메리카·아프리카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잉카문명 유적지인 페루의 마추픽추 등 40여곳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어린이들의 시각을 넓혀 주기에 충분하다. 또 '이야기역사 교실' 코너를 마련해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Best 10>(다림)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세계에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얽힌 전설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석굴암 보존의 신비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이 외에도 한글, 김치와 불고기, 태권도, 한복, 고려인삼, 탈춤, 풍류 제례악, 설악산 등을 사진과 예쁜 그림으로 설명해놓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명우 기자

### 박문열교수 '백운화상'에 매료

'불조직지심체요절' 이어 '어록' 번역



박문열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과)가 펴낸 <백운화상어록>(법우사)은 석전선사가 저술한 <백운화상어록> 상·하권을 1378년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권상, 권하를 차례로 수록했으며, 어려운 용어마다 각주를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썼다.

<백운화상>의 행장이나 수도상(修道相), 활동상을 포함한 선관(禪觀)을 알리기 위해 어록을 번역했습니다" 박교수는 지난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번역해 냈다.

<백운화상(1298~1372)>은 태고국사 해근화상과 더불어 고려말기 선교사(禪敎史)에서 삼대선결(三大禪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스님으로 간화선을 도양시킨 태고국사와는 달리 무심일도(無心一途)로써 간화선을 배제하고 선교일치를 주장해 독보적인 선풍을 진작시켰다.

### 해외신간

#### 선한 마음



티벳의 정진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최근 펴낸 <선한 마음>(The Good Heart: 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Teaching of Jesus)은 성경의 가르침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자들의 진심어린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서문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종교인의 위대한 가치"라고 말한다. 美 Wisdom 刊. (224 pp. ISBN 0861711386)

#### 떨어져 나올 때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영역에서 바로 서야 한다." 美 여성불교계를 대표하는 페마 초드론스님이 최근 발간한 <떨어져 나올 때>(When Things Fall Apart: Heart Advice for Difficult Times)는 현대사회의 문제의 해답으로 삼을 수 있는 티벳불교의 은유적 깨달음을 현대적 어감을 사용해 설명해 놓았다. 美 Sounds True 刊. (310 pp. ISBN 157062285X)

### 저자의 삶을 선사어록과 대비 서술



####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선사들의 자취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행길에서도 열매듯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담았다. 법어나 일화를 단순히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대비시키고 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는 갈 길 잃어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그 길에 흘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용담선사 일화 등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육조단경' '마조어록' '벽암록' 등을 쉽게 설명하면서 선사어록을 읽는 방법도 제시했다. <장경각, 5천원>

#### 신규탁 지음

### 화제의 책

### "부처님 말씀 귀 기울이면 악운 없다"

#### 두번째 화살을...

"곶돈을 때인 사람이 잠 못자고 밤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은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 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 두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일을 예전보다 두 배 열심히 하고, 간단한 취미활동을 할 것을 권한다.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 '똥싸서 위안하다' '인생묘약' 등의 주제아래 짧은 글들이 재미있게 엮여져 있다. <우리출판사, 8천원>

#### 덕진스님 지음

#### 두번째 화살을...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김민정 지음

우리출판사

8천원

9788951111111

www.ouripublishing.com

02-737-0695

02-737-0695

02-737-0695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망 역시어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한대불교선서사	역시어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3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종출판사
4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주	민족사
5	화엄의 세계	해 주	민족사
6	성지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순	신우당
7	가을을 찍는 부처님 말씀 20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8	불교인문	조계종전집부	조계종출판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10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대학교미술연구소	반쪽출판사

구입문의: (02)737-0695

성야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총독 2542년 부처님 오신 날

##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맞출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고통,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스 리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 비로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알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승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진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중문제일사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린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스 리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 살아 있는 선

###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스 리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영성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일종의 순환을 담고 있다.

오스 리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4,800원

###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스 리즈니쉬는 특유의 웨이스스 넘치는 우회법을 곁들여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스 리즈니쉬 강의 / 이경옥 옮김 / 천원 / 각권 값 7,500원

###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틈틈이 만나 해종국사의 원성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번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박이로 불림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五)종(五宗)의 하나인 위암종(沩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스 리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